

<b>2026년 7월, 출범 확정</b> <b>제물포구·영종구</b> <b>서구·검단구</b>	<b>보도자료</b>		<i>이제는 인천입니다</i> <b>2025 APEC INCHEON</b>
	배포일자	2024년 6월 9일(일) 총 6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	담당자	• 질병조사과장 최은정 ☎440-7981 • 담당자 김명덕 ☎440-79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균 확인

- 어패류 익혀 먹기, 피부 상처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주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채수한 인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균이 올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은 매년 바닷물과 갯벌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균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 검출된 것이다.

\* 올해 서해 지역 바다 첫 검출일 : 충남 4월 9일, 전북 4월 23일, 경기 5월 13일

비브리오패혈균은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바다 밑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자료에 의하면 환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발생했으며 인천에서는 8명(전국 69명) 발생했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않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피부에 상처 있는 상태로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이다. 주된 고위험군은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의 간 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 저하 환자이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고 △어패류는 충분히 익히며 △어패류 보관 시 5℃ 이하로 유지 △어패류 요리 시 사용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상청 장기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확률이 40% 이상이다. 따라서 어패류 등의 해산물은 익혀서 먹기, 상처 있는 분들은 해수욕 주의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 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라고 당부했다.

## 붙임 1

## 비브리오패혈증균 질의 응답

### 1.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 비브리오 패혈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

### 2.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
  -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

### 3.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 4.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간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면역저하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C 이하로 저온 저장, 85°C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

### 5.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적절한 항생제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상처치료를 병행합니다.

<자료원 : 질병관리청>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준수사항

수온이 18 °C 이상이면 전국 바다에서 원인 병원체가  
매년 검출되는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 예방방법, 치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따뜻한 바다에서 흔히 발견



## 비브리오패혈증 증상은?



급성 발열



오한



복통



구토 및 설사



저혈압



피부 병변

세균 침입 후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잠복기는 12-72시간입니다.  
주요 증상은 급성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입니다.  
약 1/3의 감염자에서 저혈압이 발생합니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 주로 다리에 발생합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어패류는 5°C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치료 방법은?

- ✓ 치료방법에는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과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약물치료시 플로오로퀴놀론 계열이나 세팔로스포린,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 ✓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절제, 절개하거나 고름을 짜내는** 등의 외과적 처치를 시행합니다.

